

친환경 축산과 청정방역으로 명품양돈 만들어가는 전라남도



▲ 전라남도 양돈인들과 전남도청 등 양돈 관련기관, 단체들은 지난해 친환경 축산인증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친환경과 청정방역을 토대로 "명품양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사진은 신규태 양돈협회 전남도협의회장(사진왼쪽 첫줄 세번째)과 전남도청 축정과 김종기 과장(사진왼쪽 첫줄 네번째)과 직원들)

글 · 사진 - 오유환

전라남도의 축산업 위치는 전국의 5위 수준으로 '06년 전국 축산업 생산액 11조 7천억원의 15%에 해당하는 1조7천억원을 생산하고 있으며 돼지의 경우 908천두로 전국의 총 사육규모의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산액으로는 3,465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해를 '친환경 축산 확산과 축사

시설 현대화를 통한 축산환경 개선 및 질병 없는 해로 정하고 첫째, 자연순환 축산을 통한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고품질·안전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며 셋째,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의 철저한 차단방역 활동강화로 가축전염병 예방하며, 넷째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광역, 명품브랜드화로 FTA 대응하고 다섯째,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수입산과의 차별화 등 친환경, 고품질, 가축질병 발생근절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주요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청 축정과(과장 김종기)를 신규태 전남도협의회장과 찾아 전남도 양돈산업 관련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 구제역 청정국 유지위해 방역 총력

전라남도는 '03년 이후 돼지열병 등 돼지 전염병 발생이 없는 지역으로 질병 청정화 지역이다. 구제역은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발생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인접한 중국·북한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인적·물적 교류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축산농가의 방역이 소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라남도는 구제역 유입 위험이 높은 3월부터 5월까지를 구제역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도, 시·군, 가축위생연구소, 농협 등 22개 시군에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 비상시에 대비하고 발생이 의심되는 축산농가 신고시 신속한 출동 체계를 유지하는 등 강도 높은 차단방역과 가축 방역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김종기 전남도 축정과장은 “2002년 11월에 획득한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구제역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방제단 796개반을 조직하여 소규모 양축농가 57천호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을 실시하며 농가 소독실태 등을 수시 확인하고 있다”며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와 도축장, 가축수송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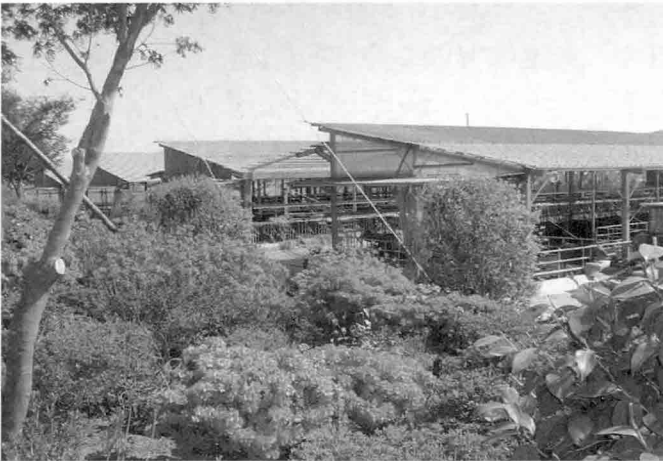
▲ 김종기 전남도청 축정과장

2. 가축분뇨 공동처리 확대 및 완속퇴비의 친환경광역농업단지 살포

가축분뇨 처리문제는 역시 양돈농가의 최대 고민이다. 전라남도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하고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농가 등 434개소에 10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의 공동자원화를 위해 영광군 및 담양군에 각각 1개소씩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환원하고자하는 경영체에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과 연계하여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1개소를 담양축협에 지원하여 1일 가축분뇨 20톤 이상을 처리하고, 아울러 전기를 생산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단독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정착촌구조개선, 액비저장조 시설, 액비살포비 등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자원화율을 83%에서 84%로 확대



▲ 전라남도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발생 등으로 생활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축사육시설을 소비자 및 주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시설로 변화시키고자 '07년부터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 나갈 계획이다.

3. 친환경축산을 통한 돼지 사육환경 개선

가.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

전남도는 청정도로 지난해 친환경축산 인증 219호 전국 1위(전국 769호의 28%)를 차지하는 등 친환경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친환경축산 3년차를 맞아 '06년 4건이던 친환경축산물 인증실적이 230여건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친환경축산 5개년 계획에 따라 금년에도 친환경 인증대상 농가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추진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발생, 깨끗하지 못한 농장환경으로 생활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축사육시설을 소비자 및 주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시설로 변화시키고자 '07년부터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

장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장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축사내부의 위생시설 개선과 농장주변의 오염원 제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0농가에 5억원(도비 200, 시군비 200, 자담 100)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참여농가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HACCP 지정을 받도록 하여 축산환경을 크게 개선하므로써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축산업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 HACCP 컨설팅 추진

전남도는 친환경축산 5개년 계획 일환으로 돼지사육부터 공급까지 전 과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여 농장부터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각 단계별로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HACCP 컨설팅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농가는 양돈업 등록을 하고 1천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총 2억7천만 원(개소당 사업비 900만원씩)을 확보해 1년간 HACCP 전문 컨설팅을 받고 HACCP적용 작업장 지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HACCP를 적용받고 있는 농장만 가능토록 하고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게는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환경개선과 경영에 대한 지도·상담 및 교육 등 일반 축산농가와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펼쳐, 축산농가의 HACCP 적용으로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2월말 현재 전남지역 HACCP 적용 가축사육농가는 총 23개소로 늘었다.

김종기 전남도 축정과장은 "앞으로도 위생과

안전성이 확보된 HACCP 적용 축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며 "HACCP 적용 작업장(농장) 지정에 위해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도내 HACCP 적용 작업장을 2010년까지 5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라.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 구제

파리 등 축사해충 구제를 위해 살충제를 반복적으로 살포 할 경우 축산물에서 환경 호르몬 검출 우려가 있어 위생적인 가축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을 실시한다.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5~6회 살포할 수 있는 해충구제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500세트에 3억원을 투자한다. 여름철 파리, 모기 등 유해 해충의 구제를 통한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마.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확대

친환경축산 추진시 추가로 투입되는 자재대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조기도입과 농가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돼지, 한육우, 젖소, 닭, 오리, 양, 사슴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천연면역강화제 구입비를 지원한다. 50호에 260백만원을 투입하여 면역증강제는 정제된 제품 또는 농가에서 자체 조제한 제품을 사용토록 하였다. 사업농가는 반드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여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전라남도는 한·미 FTA에 대응하고 가축의 생

산성향상 및 친환경축산에 적합하도록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가당 9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05. 12. 31이전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로써 등록된 축사면적내에서 축사를 이전시 지원하는 신축사업비와 동 시설을 폐쇄하고 새로 신축하는 시설, 공기청정기 및 자동 급이 및 급수 장비 등 내부 기자재를 지원한다.

돼지농가의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돼지브랜드사업 지원 농가 및 돼지계열화사업 참여농가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추가로 전업농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자격을 주고 있다.

김종기 전남도 축정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오는 2017년까지 10년 동안 친환경축사시설로 대폭 개선함은 물론,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농가와 사업들은 도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축사환경개선과 축산환경개선사업 10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양돈산업의 광역브랜드화 추진

전라남도는 양돈농가를 조직화를 통해 축산물 브랜드의 광역화 명품화 및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



▲ 전라남도는 양돈농가를 조직화를 통해 축산물 브랜드의 광역화 명품화 및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기 위해 '해두루 포크'를 출범시켰다.



▲ 신규태 전남도협회의장은 "국제곡물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40% 가까이 올라 정부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있다. 특히 FTA 등 개방화 시대에는 개별화된 농가의 힘만으로 맞서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해 지난 '06년 12월 '해두루포크'를 출범 시켰다.

'해두루포크'는 전라남도과 나주시 등 10개 시군 및 8개 축협이 연합하여 조직한 돼지 광역브랜드로 나주축협이 사업주관을 맡고, 별도의 사업단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5농가 35천두 규모이지만 금년에는 40호 50천두를 목표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참여농가중 10호를 무항생제축산물 생산 농가로 육성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모든 참여농가에서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해 나가도록 하여 대형 양돈브랜드와의 차별화를 통해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항생제 돼지고기 생산 및 유통망 확충, 홍보 등에 '06년 376백만원, '07년 513백만원, '08년 51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전남 대학교 및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과학원, 유통업

체 관계자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시로 생산 및 판매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6. 맺음말

최근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역시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어려움이였다.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서 돼지 1,500마리를 키우고 있는 신규태 전남도협회의회장 역시 날로 치솟는 사료 값에 매달 5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 신규태 도협회의회장은 "돼지고기가 1kg당 3,000원은 넘어야 이득을 낼 수 있으나 공급량이 늘어 2,700~2,800원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특단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양돈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지경"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기 전남도 축정과장은 "사료가격 상승 등 대외적인 어려움과 함께 돈가하락이 지속되어 양돈농가의 고통이 상당함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럴수록 양돈농가의 생산성 절감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라며, 전남도에서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다.

또한 정부와 관련업체, 생산자단체 등이 출연해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하고 가격 상승시 인상액을 기금에서 보전하는 방식의 축산업 안정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자리를 함께 한 신규태 전남도협회의회장은 "국제곡물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40% 가까이 오르고 산지 가축 가격은 하락세여서 양돈농가의 생업 포기 와 국내 양돈업 붕괴가 우려된다"며 "배합사료 가격안정 제도"를 실시하는 일본처럼 축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 큰 공감을 얻었다. **양돈**